

## 가장 실용적인 로마자안

--빨리 통일하라--

### 정인섭

나는 나의 저서 "국어 음성학 연구"(1973년 2월 5일, 회문출판사 발행)의 302면에서 319면까지 장편 논문 "한글 Romanization의 역사적 고찰"에서 (1) 1880년대에서 1938년까지의 혼란기, (2) 한글학회 제정,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 (3) 1939년의 McCune-Reischauer 표기법, (4) 문교부 제정 한글 로마자 표기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끝으로 나의 견해를 부기한바 있다.

그런데 혼란기의 실태는 각 선교사들과 일본학자 및 국내 인사들의 개인 의견을 자세히 소개했거니와, 그것들은 너무 산발적이어서 여기서 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시대의 세가지 안인데, 이것도 자세히 다를 수는 없고 그 장단점만 간단히 들어서 최근에 내가 주장하는 가장 새로운 실용적인 세 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글학회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한글학회의 의총으로 "한국음성학회"가 고안한 것이고, 본인이 한글로마자 표기법의 초안으로 1935년에 완성 발표하였고 1936년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정말 코펜하겐대학에서 개최)에서 본인이 한국음성학회와 한글학회와 한국 대표의 셋 자격으로 정식으로 보고 제시한바 있다.

ㄱ (g), ㄷ (d), ㅂ (b), ㅈ (z) ㅋ (k), ㅌ (t),

ㅍ (p), ㅊ (cz)로 분간했고, ㄲ (gg), ㄸ (dd), ㅃ (bb),

\* (zz) 로 병기했으며, 홀소리중에서 ㅓ (õ), ㅓ (ë), ㅡ (ü), ㅗ (oe), ㅏ (üi)로 했던 것이다.

그후 일정시대 1938년이던가(?) McCune 씨와 Reischauer 씨 두분이 서울 연건동에 있던 경신학교 교장 겐조(Genzo)씨 댁에 나를 초청해서 그들의 한글로 마자 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때 그들이 주창하는 ㄱ (k), ㄷ (t), ㅂ (p), ㅈ (ch) 와 ㅋ (k'), ㅌ (t'), ㅍ (p'), ㅊ (ch')로 대립시킨데 반대했으며, ㅐ (e), ㅔ (u)는 찬성했으나 ㅚ (ae) 와 ㅕ (oe)는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후 내가 외국의 대학에서 교연을 잡고 있던 7년 동안의 부제증 문교부 안이 결정 발표되었다. 이 안은 홀소리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당소리 표기는 한글학회의 ㅈ (z), ㅊ (cz) 를 (j) 와 (ch)로 대치한 것 외에는 한글학회 안과 꼭 같다. 그러나 McCune-Reischauer 의 안과는 당소리에 있어서는 전연다를 뿐 아니라, 문교부 안은 한글학회와 McCune-Reischauer 가 홀소리 위에 붙이는 반달표는 전연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McCune-Reischauer 의 ㅚ (ae) 와 한글학회와 McCune-Reischauer 의 ㅕ (oe)는 동일하며, 문교부 안은 한거름 더 나아가서 ㅡ(eu), ㅓ(eo)를 채택했다.

해방후 한동안 교통부에서는 철저히 한글학회 안을 모든 기차 정거장 간판에 사용하다가 몇해 후에 McCune-Reischauer 안이 가미되다가, 최근에는 문교부 안과의 혼동을 이르게 88 올림픽을 지향하는 행정적 준비에서 일례 혼란을 이르고 있다.

나는 나의 저서중의 전기 논문 끝에 한글학회의 ㅈ (z) 와 ㅊ (cz) 대신에 ㅈ (j) 와 ㅊ (ch)를 인정하면서 문교부 안의 ㅓ (eo),

ㅐ(ae), ㅚ(oe), ㅓ(eu), ㅕ(eui) 와 같은 복합 표기를 반대하고 타이프라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이픈"과 사선(slash)를 이용해서 ㅏ(θ), - (ㅂ), ㅓ (ㅈ), ㅔ(ㅌ), ㅚ(ধ) 등으로 대용하는 안을 제의한 바 있다.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다 여기서 생략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내가 새로운 가장 실용적인 안을 하나 고안하고자 한다:

ㄱ (gh), ㄷ (dh), ㅂ (bh), ㅈ (jh)

ㄱ ㄷ ㅂ ㅈ 를 g, d, b, j 의 유성음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것을 h 를 각각 가함으로써 무성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김(씨)은 Ghim 으로, 김포는 Ghimpo 로 되니, 재래는 그것을 Gim 과 Gimpo 로 하는데 그것이 "짐"이나 "짐포"로 영어에서 읽여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구실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초성으로 표기하면 중간에서 유성화되는 때는 이 h 가 탈락된다.

Ghandi, Bhudha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ㄱㄱ (kg), ㄷㄷ (td), ㅂㅂ (pb), ㅈㅈ (tj) 의 k, t, p 등은 종성으로서의 불완전 파열 (incomplete plosive) 이니 된소리를 발생에 절대 불가결한 성문파열(glottal [?])의 역할을 유도한다. 외국인이 능히 한글의 된소리를 내개하는 소질이 있다. 일본인들의 쓱음(불완전 파열)에 일치하여 그 다음 연다락 나오는 음은 반드시 한글의 된소리이다. 그래서 gg, dd, bb, jj 와 같은 아무런 구체적 소리를 연상시키지 못하는 형식보답 우수하다. 구미 글자에서 같은 담소리가 겹치면 하나의 음 가밖에 발음 않는다.

강가 (gang-gga), 이런 풀보답은 (ghangkga) 의 모습이나 이론이 옳다. ㅋ (k), ㅌ (t), ㅍ (p), ㅊ (ch) 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음에 홀소리에 있어서는 대담한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목적하는 로마자 문제는 한글의 철자나 문법을 가르치려는 국어 교육도 아니요, 또 국어의 정확한 음성학적 세밀한 음가를 표시하자는 것도 아니요, 다만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읽어서 비슷한 말소리로 알아 듣도록 하는 것이다.

ㅔ를 (ae)로 적어서 외국인이 과연 (ㅔ)음을 낼 것인가? 더구나 (아에)로 읽을 때는 큰 실수다. ㅔ를 차라리 ㅔ로 읽는다면 그래도 그 말소리를 알아 듣는다. 그러므로 나는 ㅔ 와 ㅔ를 하나로 (e)로만 하자는 것이다.

ㅚ를 (oe)로 하면 (오)로만 읽는 다른 치 (오에)로 읽을 가능성 이 크다. 차라리 ㅚ 와 ㅚ 까지 (we) 하나로 해서 발음하면 오히려 말이 통한다. 사실 현재 국어에 있어서 "에" 와 "애"가 하나로 되가는 경향이 있고, "외" 와 "왜"도 일반 발음은 "왜" 까지 통속적으로 같애지고 있다. 외국인은 한글 말에 있어서 이 세가지글 그다지 분별하려 들지 않는다. "—" 를 (eu)로 하면 어느 외국인이 (eu)를 "으"로 읽어 줄 것인가? 더구나 "에우"로 읽기 싫으니 말이다. 차라리 (w) 하나를 대체하면 그래도 알아 듣는다. 을 지로(wltjiro) 면 틀림없다.

또 "의"를 (eui)로 하면 "에우 이"로 읽게 되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y) 글자 하나로 대용하고자 한다. 의사 (ysa) 가 (euisa → 에우 이사) 보답 나을 것이요, 의의 (yy- 구 개음화된 "이 이") 가 (euieui → "에우 이 에우 이")보답 국내외에서 청각상 타당성이 많다. 의약 yyak 이 euiyak (에우 이 약)보답 낫다.

위에 말한 - (w) 나 - (y) 다음에 홀소리 아, 오, 이, 가  
오면 하이픈을 넣어서 "으아" 가 (wa) 로 되지 않도록 (w-a) 로  
표기하고, 의안은 (y-an)으로 적으면 된다.

이상에서 내가 새로 제창하는 로마자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국내외인에게 통할 수 있는 실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난맥  
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자 표기법은 통일이 되야 하며 가장 실질  
적 효과를 이루어야 하는데, 다만 하나 결단을 요하는 것은 바  
로 "ㅓ" 홀소리이다. (o) 나 (eo) 두 개가 다 비실용적이요  
모순이 많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모든 홀소리를 부호 하나 쓰  
지 않고 또 복합자를 쓰지 않고 해결했는데, "어" 음 하나만을 어  
쩔 도리가 없어 "o" 에다가 차자기로도 찍을 하이픈을 속에 넣어 θ로  
하고자 한다. 속에 든 하이픈 점이 무언지 몰라도, o에 속하  
는 음으로 "ㅓ"로 읽어도 한글의 "ㅓ"와는 가차운 음이다.  
그리고 특히 (억)는 하이픈 없이 (wo)로 표기하기로 한다. (w)  
와 (o)가 합치면 거진 "억" 음에 가깝다. 그려므로 (수원)은  
Suwōn이나 Suweon으로 쓰지 말고 (Suwon)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ㄱ gh	g	k	ㅋ k	k	k
ㄷ dh	d	t	ㅌ t	t	t
ㅂ bh	b	p	ㅍ p	p	p
ㅈ jh	j	t	ㅊ ch	ch	t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ㅅ s	ㅅ s	ㅌ t		ㅎ h	ㅎ h	
ㄱㄱ kg	"	ㅋ k		ㄹㄹ	ㄹ l	
ㄷㄷ td	"			ㄹ r	ㄹ l	
ㅂㅂ pb	"			ㅁ m	"	"
ㅈㅈ tj	"			ㄴ n	"	"
ㅅㅅ ss	"	ㅌ t				
ㅏ a	ㅑ ya	ㅓ e	ㅕ yθ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w	ㅣ i			
ㅔ e	ㅕ ye		ㅘ wa	ㅟ wi	ㅚ wo	
ㅐ ae	ㅕ we	ㅕ y				

## &lt;주석&gt;

- 1) 고정된 것은 그대로 둔다. 보기 : 서울 Seoul
- 2) 접면을 인정한다. 보기 : 독립문(동림문) Dhongnimmun
- 3) 범례:  
 김 Ghim, 김포 Ghimpo, 김해 Ghimhe,  
 의정부 Yjøngbu, 의인촌 Weinchon, 왜간 Wegan,  
 을지로 Wltjiro, 꽃마을 Kgonmawl, 중앙 Jhung-ang,  
 한강 Han-gang, 수원 Suwon, 학교 hakgyo,  
 해인사 Heinsa.